

2 뉴스

수강신청 잔여석 0개 담당자는 ‘부재중’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서울] 문과대학(문과대) 국어국 문학과(국문과)에서 수강신청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 잔여석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전공 수강신청 날이었던 지난 11일, 국문과 전공선택 과목의 잔여석(TO)이 열리지 않았다. 수강 신청 시작시간에 소수의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한 과목의 TO가 0으로 표시된 것이다. 문과대 행정실은 약 한시간 뒤 TO를 마련했지만, 사전 공지가 없어 다전공생의 불만을 샀다.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수강신청 관련 업무는 본래 단과대 소관이다. 하지만 문과대는 수강신청 관련 업무를 각 학과 조교들에게 위임했고, 당일 국문과 담당 조교가 수강신청 시작 시간에 자리를 비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문과대에서 학사를 담당하는 조병렬과장은 “학과별 특성에 맞게 여석을 조정하라는 취지로 관련 업무를 각 학과 조교들에게 위임했다”며 “당일 오전에 (수강신청) 담당 조교가 교수의 호출이 있어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국문과를 다전공 하는 학생들은 상당 시간 국문과 과목을 수강신청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문과 다전공생 2019학번 A 씨는 “예정된 시간에 몇 개의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잔여석이 전부 0으로 표시돼 졸업학점에 필요한 전공선택 과목 신청이 불가했

다”며 “국문과 사무실에 문의하기 위해 30통이 넘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 역시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11 시경 통화에 성공했지만, 수강신청 담당자가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만 받았다”며 “번호를 받아간 뒤에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을 수 없었고, 국문과 사무실의 무책임한 태도에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우리신문은 해당 사안이 벌어진 후 문과대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문과대 행정실 관계자는 “전 할 말이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국문과 사무실과도 며칠에 걸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다전공 수강신청) 담당 조교가 자리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강신청 관련 문제는 매학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신문은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2학기에도 시각디자인학과 다전공생들에게 수강신청 잔여석이 열리지 않았고, 관련된 공지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관련기사: 시각디자인학과 수강신청 혼란, 신청 방식 변경 오류/대학주보 제1674호 (2021.09.01.))

학사지원팀은 “강좌가 너무 많고, 단과대학별로 설정한 학년별 정원을 알지 못해 사전에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매학기 발생됨에 따라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대학주보DB)

경영대학 비제로률 폐지

양세빈 기자 abok29@knu.ac.kr

[서울] 8월 5일 경영대학의 성적 상한 제도 비제로률(B0률)이 폐지됐다. 비제로률이 적용된 지 8년 만이다.

경영대학 학생회에 따르면, 경영대학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의견 수렴 ▲교내외 상황 고려 ▲타 학과 및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비제로률 폐지를 결정했다. 비

제로률이란 상대평가 과목에서 수강생 학점 평균을 2.99 이하로 맞춰야 하는 제도다.

경영대학은 지난 2015년부터 비제로률을 운영했다. 경영대학 학생의 경우 상대평가 과목에서 학점표준화제도와 비제로률을 모두 적용받았다. 학점표준화제도는 우리학교 학생 전체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학점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B+이상 40% 이내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상대평가 과목에서 적용되는 비제로률은 코로나19로 절대 평가가 시행되며 지난 학기까지 잠정 중단됐다. 오는 2학기부터 대면 수업과 함께 상대평가가 재개되면서 경영대학 학생들은 비제로률을 다시 적용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경영대학 학생들은 성적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비제로률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경영대학에만 비제로률이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를 대두시켰다. 우리신문 역시 A+~B0를 기준으로 한 성적 누적비율을 타 학교와 비교해 비제로률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경영대학 비제로률 개선요구/대학주보 온라인 (2022.03.13.))

경영대학 학생회 또한 지난 4월 학생들의 불만을 수렴해 비제로률 폐지 진행에 나섰다. 당시 경영대학 학생회 측은 “비제로률이 취업과 대학원 진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학교 내에서도 단과대학별 불평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3면으로 이어짐

2022-2학기 캡스톤디자인 학생지원사업 시행 안내

진행 일정 (*알라딘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통해 진행)

학생	센터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센터	학생	센터
캡스톤디자인 예산 지원 온라인 신청 09.01(목)~09.30(금)	신청서 검토 및 승인 09.01(목)~09.30(금)	신청서 방문 제출 09.01(목)~09.30(금)	센터 승인 후 과제 수행 및 예산 사용 승인 후~12.14(수)	영수증 중간검토 기간 10.24(월)~11.04(금)	과제 및 예산 사용증료 09.01(목)~12.14(수)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입력기간 12.07(수)~12.20(화)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검토 및 승인 12.07(수)~12.27(화)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목록 원본 방문 제출 12.14(수)~12.27(화)	지원금 지급 (23년 2월 예정)

예산지원 기간

2022.09.01.(목) ~ 2022.12.14.(수) (2학기 종강 1주 전까지)

학생 참여 기준

가. 2022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중인 재학생
나. 2~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 (팀별 대표학생 신청)

학교 지원 사항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시험분석비, 회의비, 출장비 등
(자세한 지원항목은 알라딘 홈페이지 가이드북 참조)

지원금액

가.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실비지원 형태로 진행)
나. 팀당 최대 5인 기준, 최대 50만원 지원

* 기업, 지역사회 연계, 대외공모전(경진대회 등), 창업연계 프로젝트인 경우 1팀당 최대 100만원 지원(인당 20만원)

유의사항

- 가. 캡스톤디자인 강좌 수강생이어야도 알라딘을 통해 팀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 나. 증빙자료 미 제출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다. 1, 2학년 수강생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은 진행되지 않음
- 라. 6인 이상 팀원이 지원하여도 5인까지 지원금 지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23. 01월 예정)

- 가. 목 적 : 캡스톤디자인 성과 확산 및 디자인한 과제의 실현·사업화
- 나. 지원자격 : 2022-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팀
(2인 이상으로 팀 구성)
- 다. 수상팀 혜택
 - 시제품 보완비용 및 작품 패널 제작 지원
 - 완성된 패널 웹진 게시(http://wzine.kr/knu_capstone/)
 - 상장 및 부상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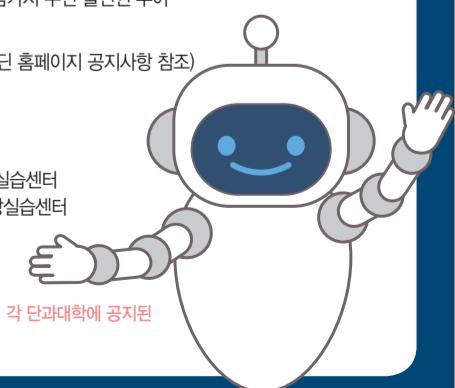
- 대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시 우선 출전권 부여

기타사항

2022년 12월 중 상세공지 예정(알라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홈페이지 <http://aladdin.knu.ac.kr>
E-mail capstone@knu.ac.kr
서울C 02-961-0969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국제C 031-201-3924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 관련 세부사항은 알라딘 홈페이지 및 각 단과대학에 공지된 가이드북 참조